



공장도價↓ 주유소價↑ ‘황당한 기름값’

국제유가의 강세로 국내 기름값도 브레이크 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막대한 세금과 이해하기 힘든 기름값 결정구조로 인해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유가 급등의 대표 지표인 국제유가의 상승률을 2배 가까이 웃도는 휘발유값 상승, 그리고 정유사가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이 내렸는데도 정작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둔 현상은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이나 가격집계 기관도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해 소비자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세금 인상에 휘발유 소비자가 16주 연속 상승 산자부 “정확한 이유 모르겠다”...소비자만 피해

(1천548,01원)에 근접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가격일 뿐, 도매시장의 가격은 다르다. 정유사들이 주유소나 대리점에 판매하는 무연보통휘발유 가격은 5월 넷째 주 1당 1천495원을 찍지점으로 반락, 주유소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한 5월 다섯째주에는 1당 1천491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문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늘어나는 세금으로 가격이 뛰어나거나 기름값에 민감해진 상태에서 이런 현상의 이유로 모르고 대책도 없다는 점이다.

산단자원부 관계자는 “기름값 변동에 시차가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정확

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격을 집계하는 석유공사 관계자도 “공장도가와 소비자의 움직임이 연계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며 공장도가가 내렸는데 소비자가 오르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며 “그러나 주유소 등을 통해 파악해도 ‘기름값 결정은 자율화해 있다’는 답변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휘발유가, 원유가격 상승의 2배=한국석유공사의 가격자료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가는 2월 첫째주부터 5월 다섯째주까지 16주 연속으로 올랐으며 상승폭은 10.9%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휘발유 가격의 50%를 훨씬 넘는 각종 세금으로 기름값 상승 폭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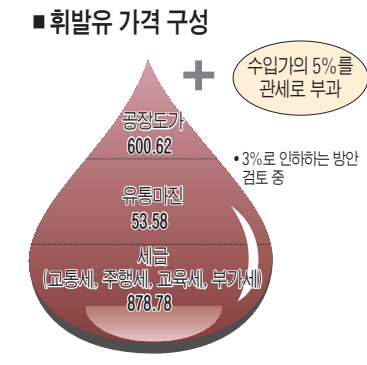
뿐, 세전 공장도 가격을 보면 이 기간 휘발유값은 1당 462.76원에서 611.16원으로 32.1%나 폭등했다.

이에 비해 이 기간 증산산 휘발유주간 가격은 배럴당 55.56달러에서 64.71달러로 16.5% 상승하는데 그쳤다.

환율문제를 빼면 국내 휘발유가 상승 폭이 원유가격 상승폭의 2배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석유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원유가보다는 국제유가에 더 연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자료상 국제시장에서 국내 무연보통휘발유에 상응하는 제품인 옥탄가 92 휘발유는 2월 둘째주 배럴당 63.93달러를 저점으로 꾸준히 올랐으나 5월 셋째주 89.72달



러로 고점을 찍은 뒤 2주 연속 내려 5월 다섯째주에는 85.94달러였다.

국내가격이 계속 뛰는 동안 국제가격은 하락했으며 국내 제품가가 국제 제품가에 고스란히 연동되지도 않았다

석유공사 정진규 국내조사팀장은 “정유사들이 국제 휘발유가와 원유가격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가 자율화된 데다 정확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젊음을 드립니다

6일 광주신세계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부분 가발의 일종인 ‘헤어보텍스’를 써보고 있다. 헤어보텍스는 기존의 통가발과 달리 원하는 부위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부분 가발로, 1개의 가격이 15~30만원에 이르는 고가임에도 고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휴대전화로 결합상품엔 10%이하?

〈인터넷+전화+TV〉

SKT 이달 25일 발표… KT·하나로텔도 조율중

내달부터 허용되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해 그동안 물밑에서 치열하게 탐색전을 벌이던 업체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품을 내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5일께 첫 결합 상품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기로 하고 조만간 결합판매 인가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결합판매 인가를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동전화 요금 공청회에서 “요금 경쟁은 이미 시작했다. 다음달 결합 상품 판매가 시행되면 요금을 내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요구를 수용해 결합상품에 포함된 휴대전화 요금을 10%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합상품 판매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KT도 업계 동향을 주시하면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KTF가 사활을 걸고 있는 3세대 이형의 SK텔레콤 CR전략실장도 4일

등을 묶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올해 초 ‘초고속인터넷+전화+TV’, ‘초고속인터넷+전화 또는 TV’를 묶은 상품을 내놓아 13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하나로텔레콤은 KTF와 3G 재판매 협상을 벌이며 상호 입장을 조율중이다.

LG텔레콤은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기존 상품보다 10% 이상 요금을 낮춘 결합 상품을 내놓으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결합 상품에 제한된다 해자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면 인하의 제약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인포드림넷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사(남/녀) 모집	고졸/경력무관	2600~2800	06/12	062-236-0217
서울검산	정규직 비파괴검사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12	062-369-0790
큐닉스	일반사무 업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15	062-525-5757
보리고양이	[보리고양이] 여성리뷰 MD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233-8982
KTES	연구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모집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6/15	062-371-1480
인포웨이	측량 기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11-612-4808
롯데리아광주점	롯데리아 관리자/매니저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15	011-630-6313
살림산업	나주 공장 및 광주 영업소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6/22	062-652-2701
미래에셋생명	2007년 미래에셋생명 신입 FC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2	062-351-2121
윈테크	총무/경리/4대보험/사무보조 사원모집	고졸/경력2년	1400~1600	06/22	062-961-9320
한샘인터리어 사무점	판매직 사원 공고	회사내규	회사내규	06/22	062-385-4800
현대인전관리공사	외환은행 상무 청정 여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22	02-716-1343
비엠글로벌	[신세계백화점] 울산 매장관리 및 판매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6/22	062-360-1539
D.J. OUTDOOR (동일물산)	기획관리 및 영업/마케팅/판매관리/MD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2	062-954-358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신용대출금리 큰폭 올라

은행권 작년말보다 0.21~0.64%p↑

올 들어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직장인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용대출 금리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에 금융거래(CD)에 연동해 금리가 결정된다.

6월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은 지난해 마지막 주 연 6.41~10.93%에서 이번 주 6.71~11.57%로 최고 0.64%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은 기존에는 전체 신용대출 13등급 가운데 7등급까지만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3월부터 8등급까지 대출가능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최고 적용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 적용금리 역시 0.30%포인트나 올랐다. 우량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한은행 ‘엘리트론’도 작년말 6.33~7.83%에서 6월 현재 6.54~8.04%로 0.21%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역시 작년말 연 6.36~10.50%에서 6월 기준 6.57~10.50%로 최저금리가 0.21%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급여소득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적용금리는 고정됐다. /연합뉴스

도난 카드 비밀번호로 인출편

은행 보상 책임 없다

카드 절도범이 비밀번호를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은행이 카드 주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16일 밤에 야구원 습장에서 B은행의 현금카드를 넣어둔 가방을 도난당했으며 다음날 새벽 그 사실을 알고 은행에 은행에 분실 신고를 했다.

절도범은 A씨의 신고 전에 B은행의 강남역지점 현금기금기 등에서 19차례에 걸쳐 1천330만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다.

A씨는 카드를 도난당한다며 비밀번호를 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부정 인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금융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은 채권의 준점유자(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당시 비밀번호 입력에 오류가 없었던 이상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금융원 관계자는 “약관상에도 은행이 부정 인출된 예금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평소에 카드는 물론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항·백화점 등 구내 담배소매점

“출입문에 광고 표시판 불가”

공공기관이나 공항, 백화점 등의 구내에서 담배를 파는 소매점은 출입문에 담배를 판다는 광고효과를 가져오는 표시판을 붙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이 모씨가 ‘구내소매인이 출입문 앞에 서터가 있는 경우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출입문에 붙이는 것이 허용되느냐’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재정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민원인 이씨는 출입문 앞에 서터가 있는 경우 출입문을 외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담배 판매 표시판을 붙일 수 있느냐고 질의했으며 재정부 종합민원실은 이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해석했다.

종합민원실은 출입문에 담배 판매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0조의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직장인 교통비 한달 1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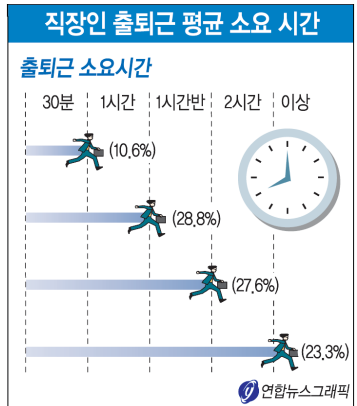
출퇴근 시간 하루평균 1시간 13분 소요

직장인들은 출퇴근시 쓰는 교통비는 하루평균 6천200원이고, 한달에는 평균 13만4천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t.com)는 리서치전문기관 엠브레인(www.embrain.com)과 함께 최근 직장인 2천116명을 상대로 출퇴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출퇴근시 쓰는 교통비는 하루 평균 6천200원이었고 한달에는 평균 13만4천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교통비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1%였고 이밖에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2.0%),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6.2%), ‘30만원 이상’(13.7%)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출근과 퇴근에 드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13분으로 집계됐다. 출퇴근 소요시간이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



자가 28.8%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1시간30분 미만’(27.6%), ‘2시간 이상’(23.3%), ‘30분 미만’(1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이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복수응답)은 자가용(44.9%), 버스(31.3%), 지하철(30.3%), 도보(13.6%)순이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는 평균 1.8개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한다고 답했다. /최경호기자 choice@